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Beautiful ONE" 을 꿈꾸는 원 미니스트리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발달장애 사역기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박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13-14)

우리는 2024년도를 살면서 날마다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잘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무슨 일을 할지, 어디로 갈지 등등...삶의 행로에서 매순간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우리가 반드시 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생뿐 아니라 영원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으신 문제가 바로 어떤 문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 앞에 두개의 문이 있는데, 각각의 문에 들어서면 두 길이 나오고, 그 길 끝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두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선택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

성에게 생명과 사망, 선과 악 중에서 선택할 기회를 주셨고, 신약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스스로를 그분의 제자라고 여기다가 어느 순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통해 생명을 택할 것인가 죽음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선택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앞에 있는 길은 좁은 길과 넓은 길, 딱 두 가지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의(righteousness)와 인간의 의(righteousness)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좁은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쓰여 있고, 넓은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쓰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두 길 모두 문 입구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마귀가 넓

은 길을 ‘지옥으로 가는 길’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길 모두 구원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주장하지만, 천국으로 향하는 문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가지 밖에 없다는 것은 세상에 두 종류의 종교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종교와 인간이 성취하는 종교입니다. 전자는 은혜의 종교이고, 후자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있지만, 행위의 종교에서는 구세주 대신 각자가 스스로 의를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인류는 인간이 성취하는 종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이 두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그는 스스로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했기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근처에는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

서는 죄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기 욕심껏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만 살짝 엮었다고 해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삶에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순종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쌓으며, 종교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일도 회개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제 2024년을 보내며, 자신이 한 선택들을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신념을 따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나, 선택은 자기 몫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따라 내년에도 힘차게 전진하시는 원미니스트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WRITTEN BY
장진원 목사님

DAY PROGRAM 두드림



다리 힘이 좋아졌네



예쁘게 해주세요!



미래의 피아니스트



요번엔 뭘 볼까~



언제나 즐거운 요리



열공 모드



아슬아슬한
Jenga Game



진우야~ 들리니?



나래누나~
내가 밀어줄게

DAY PROGRAM 두드림



멋쟁이 남자들의 합주



신나는 Pom-Pom Dance



과자로 만든 집
맛있겠다~



정성스런 Kneading



저 Sushi~
너무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Moya!
예의바른 청년



두손 꼭 잡고~
따스한 Hand Bell 연주

금요학교



반주 부탁드립니다



성경공부중



친구사이



솔방울 인형



사모님과 합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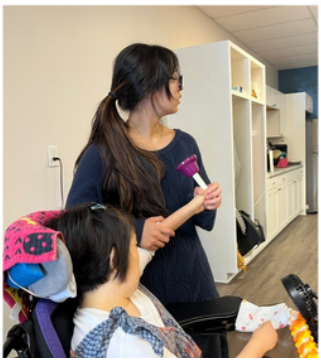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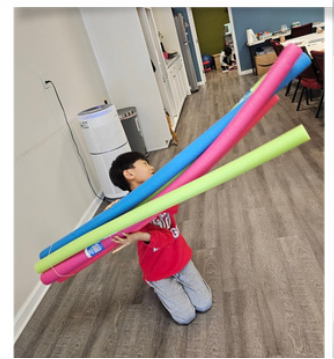
우리 이쁜 정연이~



Pop-A-Shot 농구게임



꿈글학교 가을학기



Play, Learn and
Grow together
with Jesus!



ONE MINISTRY NEWS



원미니스트리 송년 가족모임 안내입니다.

신청은 원미니스트리 단체카톡에 올린
링크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신청마감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원미니스트리
송년가족모임

12월 15일
5-7 Pm | Sunday

찬양예배 인도 : 권용구목사 (애틀랜타 마가교회)

&
저녁식사, 경품추첨

예수소망교회 체육관
3671 Smithtown Rd,
Suwanee, GA 30024

CONTRIBUTION



11월 후원자님

Michael Kim (\$500)
[사랑이네 치과]
Connect & Ji Education (\$90)
곽공옥, 서귀애 (\$1000)
Moya Cooper (\$30)
섬기는교회 (\$200)
Sally 성희 김 (\$2000)
[The Good Management]
최경숙 (\$300)
김성락, 정진이 (\$50)
장진원 (\$250)
채정림 (\$30)
주영광고교회 (\$100)
예수소망교회 (\$1800)
구자은 (\$50)
이예선 (\$400)
이동욱, 이희정 (\$50)
노영우, 노형숙 (\$50)
박영숙, 유재원 (\$50)



점심후원

안나래 가정 (11/07)
곽진우 가정 (11/12)
장진원목사 (11/13,15)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원미니스트리는 조지아주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으로 기부하신 모든 금액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1. Check 우편 발송

*Payable to:

ONE Ministry Atlanta, Inc

*Send to:

302 Satellite Blvd. Suite #129

2. 계좌 입금 (Bank of America)

*Account #: 334061943445

*Routing #: 061000052

3. Zelle Transfer

온라인 은행 계좌에서

ONE Ministry Atlanta, Inc와

oneministryatlanta@gmail.com을

등록 후 송금.

ONE MINISTRY CENTER



MAIN MISSIONS

1. 예배 및 선교 사역

* 교회 장애인 부서 개설 및 장애 사역 지원

2. 교육 사역

* 원미니스트리 한글학교: **꿈글학교**

* 금요학교

* Summer Camp

* After School Classes

3. 복지 사역

* 발달 장애 성인 데이 프로그램: **두드림**

Director: 장진원목사님

Open

Tue-Fri: 9 am-5 pm

Sat: 9 am-2:30 pm



302 Satellite Blvd #129

Suwanee, GA 30024



470-350-1094



info@one-ministry.com



facebook.com/1000770455929



www.one-ministry.org



oneministry.atl